

장수에 용성스님 생가 복원

죽림정사 지난 29일 낙성법회 조사당·선원도 내년 6월까지 건립

한국 근대불교의 중흥조이자,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용성 진종스님의 생가(전북 장수군 반암면 죽림리 25번지)가 9월 29일 복원됐다.

이번 용성스님 생가의 복원은 지자체가 '역사의 흔'과 닮았다는 고승들의 열과 정진을 신앙, 지역뿐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를 다지는 일로서, 지역주민들의 성원속에 이뤄져 의미가 깊다. 특히 생가 터에 들어선 죽림정사(조실 및 주지 도문)는 3.1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용성스님의 10법계관심법을 받들어 스님의 탄생지를 성역화해, 전국의 청소년 수련장과 국민정신교육장으로 만들 계획이어서 포교에도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이사장 유종혁)와 장수군(군수 김상두)은 9월 29일 용성스님 생가터인 죽림정사(조실결 주지 도문)에서 지역주민과 불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용성조사 생가복원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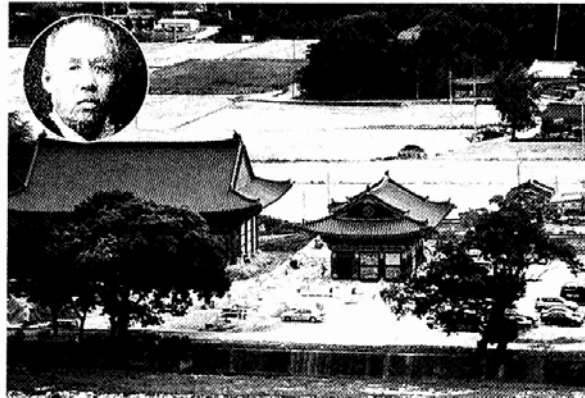
이날 법회는 영산재, 용성조사 행장 소개, 축사, 감사장(장수군수)가 중국 하남성화교연합회 임실매주석에게 수여, 죽림정사 터다짐을 위한 농악공연, 승무 등으로 진행됐다.

국비 2억원과 도비 5천만원 등 총 15억여원을 투입해 토지 5000여평을 매입, 죽림정사 대웅보전 33평을 이미 완공하고 이날 31평의 생가를 복원한 기념사업회는 내년 6

월 5일(용성스님 탄생일) 준공을 목표로 31억원을 투입해 108평의 용성조사당(교육관, 90% 공정)을 비롯 선원도, 종무소, 요사채, 전통차집 등을 갖춘 죽림정사를 완공할 예정이다.

성역화사업의 또다른 한축은 기념관 건립 사업. 장수군은 최근 군비를 들여 죽림리 일대 1만5천평을 기념관 건립부지로 조성했다. 용성스님 등 민족대표 33인의 영정과 사료 등을 전시해 국민모두를 위한 민족독립정신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현 김상두 장수군수의 원력이 큰 몫을 했다. 김 군수는 성역화사업을 위한 장수군민 1만명 동참운동(전체 장수군민 3만명)을 전개, 최근 지자체가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던 터에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주는 신선한 청량제가 되고 있다.

1864년 5월 8일(음력) 탄생한 백용성조사는 민족불교를 지키려고



◇용성스님 생가터 5천여평에 자리잡은 죽림정사 전경, 오른쪽부터 생가, 대웅전, 용성조사당, 원내는 용성스님 영정.

식민지 불교에 정면으로 저항한 호법신장, 불교의 개혁과 혁신을 스스로 실천한 개혁가, 선농불교(禪農佛敎)를 몸소 실천한 선사, 일제 치하 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대각교를 창립한 주역, 민중의 깨달음을 위해 대각사상을 제창한 사상가, 불경 한글번역의 창시자, 불교사상의 대 저술가로서 불교계 뿐 아니라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추앙 받고 있다.

용성스님의 법제자인 죽림정사

조실 도문스님은 "깨침의 세계를 연 수행자로서 상구보리 하회중생의 실천 전형을 보여준 용성 조사는 이 시대 중생들이 따라야 할 진정한 사표"라면서, "죽림정사 불사를 비롯 장수군의 대대적인 성역화 사업이 10년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용성 조사의 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정신세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장수=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종 단 소식

조계종

사찰 정화시설 조사

조계종 총무원회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사찰 오수 정화 시설 및 계속 수질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밀양대학교 이병인 교수와 국립환경연구원 이영준 박사 등으로 구성된 사찰오수정화시설 정화연구팀은 계룡산 동학사와 갑사, 속리산 법주사, 경주 불국사와 기림사, 지리산 화엄사 및 팔사 등의 일정으로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시행했다.

자장율사 연구법회

제15교구 본사 통도사(주지 신허)는 5~6일 제1355주년 개산조 자장율사 연구법회를 봉행했다. 5일 입재법회에서는 스님의 부도앞에서 현대의식이 봉행되며 통도사 산하 유치원 재동찬치, 부처님 가사 친견 및 폐불이운, 산사음악회(불자연행인 공연)와 점등 순으로 진행됐다. 6일 기념법회는 개산대제 법요식, 제4회 과불탱특별전, 합창단 경연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055)382-7182

천대종

삼광사 지장전 낙성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18일 오전 10시 지장전 낙성 및 옥 지장보살 점안식을 갖는다. 97년8월 기공식을 가진 지장전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총건평 264평으로 1층(132평)은 주방과 식당, 방 3개동이 들어서고 2층(132평)에는 옥으로 조성한 크기 4m의 지장보살상과 좌우협시인 도명존자·무독귀왕, 시왕, 동자상 10인, 관관 2인, 녹사 2인, 년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 4인, 문입구를 지키는 장군 2인 등이 봉안된다. 삼광사는 지장전 낙성을 기념하는 영산재 및 생전에수재를 20~22일 3일간 봉행한다. (051)808-7111

조동종

17-19일 중앙연수교육

제6차 중앙연수교육이 17일부터 19일까지 종정 지명스님과 각 부 원장, 총무원장 등 종단 스님들과 교묘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원효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사계 수계, 입실건당식, 법계고시 등이 치러지며 종정스님과 각 원장스님들의 강의도 있게된다. (02) 713-0475

일불선교종

총무원장·총회직장 취임

제6대 총무원장 장봉암 스님과 제5대 중앙총회의장 오원각 스님의 취임법회가 5일 오후 2시 종로구 일불선원에서 봉행된다. (02)394-9468

화엄종

장학금 3천만원 전달

화엄종 장학회(이사장 정희수)는 9월 23일 인천 약사사 대웅보전에서 2000년도 후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정희수 이사장은 동국대 불교학과 2년 이혜정, 서울대 법과대 2년 이송훈씨등 대학생 12명, 대학원생 2명, 고등학생 55명 등 모두 69명에게 장학금 3천1백50만원을 전달했다.

미륵종

영남불교의식연구회 개원

9월 19일 부산 백양사(주지 명암)에서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중앙교육원 부산 영남불교의식연구회 개원식이 봉행됐다. 이 연구원에서는 매주 금요일 초급반과 상급반으로 나뉘어 사부다루는 법, 도량식, 각 단예불, 삼주권공, 대령, 도량식 등 불교전통의식을 정업·지덕·법성·덕운 스님 등이 지도한다. (051)336-0408

대전 원광사 옹벽 붕괴

사고원인 놓고 지하철공사와 다툼

대전 동구 관암동에 위치한 염불종 원광사(주지 청봉) 소유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원인을 놓고 원광사와 지하철공사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14일 원광사 소유 텃밭을 지지하고 있는 길이 27.3m, 높이 4m의 옹벽이 무너져 10년생 나무 10여 그루가 부러지고, 밭의 일부가 내려 앉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원광사측은 도시철도 1-2공구 관암동 구간 공사의 잦은 발파 작업과 기타 수반 작업으로 인해 지지기반이 약해짐과 동시에 옹벽에 무리가 사고가 촉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봉스님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보수공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하철 공사측은 "이번 사고는 경사지 밑에 T자형 바닥 설치해아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지 않고 옹벽을 쌓은것이 비로 인해 연결부분이 끊어져 나간 것이다"는 입장이다.

원광사는 현재 동부경찰서와 동구청 등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정확한 사고발생 원인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백두산부대 법당 기공

강원도 양구 백두산부대는 9월 25일 신병교육대 법당 기공식(사진)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단 법사 정형스님과 부대장, 불자회장 장천봉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총 공사비 1억 3천만원 가운데 청도 운문사 북대암 주지 법준 스님이 1억원을 보시해 만들어지는 법당은 76평의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외벽에는 불화를 그려 넣어 전통미를 살릴 계획이다. 법당은 11월 4일 완공되며, 불자들의 물품 후원이 절실하다. (033)481-5806

김두식 기자

춘천 소양로 7층탑 이전복원

보물 제77호 춘천 소양로 7층석탑 이전·복원공사가 마무리 돼 9월 28일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향법회가 봉행됐다.

청량사주지 청화, 석왕사주지 백운, 삼운사주지 월도스님이 공동위원장인 봉행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화향법회는 청화 스님의 법문, 백운·월도스님이 봉축사, 말본스님(정법사주지)의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화향법회를 가진 소양로 7층석탑은 기존의 위치에서 안쪽으로 10m

정도 이전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작업과 땅속에 묻혀있던 1m50cm 가량의 탑 하단부를 지상으로 들어올려 최초 건립 당시의 모습을 되살렸다.

목포 유달산 반야사 대웅전 삼존불 봉안

목포 유달산 반야사(주지 삼홍)는 9월 22일 대웅전 삼존불 봉안식 및 명부전 지장보살 개금불사를 봉행했다.(사진)



백양사 조실 서용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신 이날 법회는 백양사 주지 다정스님의 법문, 용화사 수진스님의 봉축 및 점안식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목포문전불자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조운오 목포지국장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향상선원 신도들.

부산불심 이끄는 도심포교당

교리 강좌·선방 개방·이웃돕기

향상선원·달마선원 등

부산시내 도심 포교당들이 참선·독서·교육·문화·복지 등 저마다 특색있는 포교 방편들을 활용해 불자들을 생활불교를 이끌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변화기인 서면에 위치한 통도사 부산포교당(주지 심산, 051-816-2241)은 기초교리, 기도 등 기본적인 신행 외에도 한국무용, 영어특강, 사물놀이, 판소리, 한문강좌 등을 여는 한편 외국인 포교를 위한 국제포교부, 문화포교를 위한 한나래문화재단을 운영해 일반 시민들을 불교로 이끌고 있다.

최근 포교공간이 전무했던 해운대 신도시 포교의 중심으로 떠오른 향상선원(주지 덕일, 051-747-7870)은 올해 초 8천여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을 열

어 800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하면서, 매주 2·3차례 열리는 교양불교대학을 통해 기초교리를 확실하게 지도하고 있다. 특히 보현복지회를 결성, 불우이웃돕기와 북한동포돕기에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범어사 부산포교당(주지 정여, 051-853-5486)은 불교용품점, 불교한의원, 사찰음식점, 불교교육대학 등이 함께 들어선 불교회관에 들어서 있어 다양한 신도들의 신행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해인사 원당암포교당원인 달마선원(주지 대운, 051-468-8503)은 24시간 선방을 개방해 직장인과 주부, 학생들이 수시로 참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E-mail: pubms@chollian.net pubms@netsgo.com

묘곳과 진오귀곳의 대가, 무속인 정정희의 新무당 이야기

내가 울어야 너희가 편하지

신국판/값 7,500원

무속인 정정희는 누구인가?

명성 황후를 뒤희신으로 모시는 그는 세간에 인비 보살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얼마 전, 살아생전 불심이 지극했던 명성 황후가 관세음보살로 해탈한 것을 선증반기도 하였다. 그는 실제로 정신이 이루어져 원만해서는 제대로 김당하지 못하는 묘곳과 진오귀곳에 특히 강하다. 무속인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는 그는 항상 남의 고통을 제 고통으로 살아야 진정한 무당이라고 말한다. 무당이 당신을 위해 눈을 흘리고 고통스러워 할 때 당신은 평온하고 행복해진다...

최근 정정희(정주영 전 명예 회장)가 풍수대가들이 천하명당이라고 평가한 정운동 집을 떠나 기하적으로 이사한 것은 무속인 정정희 씨의 권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서, 2000, 7, 28』

정정희 씨가 무너져서 치유 능력이 각별한 것은 그의 기가 유별나게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혼불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그녀의 기가 강하다는 증거이다. 지난 5월에 대한 항공의 여객 승무원 세 사람이 무부리를 하러 왔다. 7월 16일 비행기 사고가 크게 일어날 것이니 직장을 그만 두고 시집가는 게 좋겠다는 정정희가 나왔다. 그 중 한 사람인 김 씨는 결혼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 살았고 두 사람은 곧 비행기 사고로 참사를 당했다고 한다. 『서정범의 「무녀법」 중에서』

“산사에서 만난 스님들과의 소중한 인연 이야기”

시인 현주하 자전 산문집

절에서 만난 사람들

성철, 고암, 일타, 법흥 큰스님.....

명정한 깨달음과 강렬한 느낌을 줬던 법정 스님, 많은 이들을 품었다 미련도 없이 길을 내주는 심성을 일깨워준 구산 큰스님, 지리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여준 각운 스님..... 불가에서 널리 그 덕을 칭송받는 많은 스님들과의 만남과 그들의 인간적이며 솔직한 이야기.

담백하고 잔잔한 이야기들을 읽다가 보면 한 폭의 수묵화 같은 멋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소설가 하일지

소중한 스님들과의 인연들이 혼돈하게, 때로는 몽롱하게 마음에 다가온다. -소설가 임철우

절에서 만난 사람들

신국판/값 7,500원



자녀와의 만남 031-921-5445

110-300 서울 종로구 관동동 192-13 성지 B/D 503호 TEL. 733-4277(4) FAX. 733-4279

